

孟子 ‘亦’의 용법에 대하여

許成道*

0. 의미의 분화에 대한 하나의 전제

사람은 삶의 본질 혹은 삶의 의미나 가치를 모르면서도 살아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휘의 의미의 개념이나 의미의 본질을 모르면서도 어휘를 사용한다. 이는 의미의 개념이나 본질을 모르는 것이 어휘의 사용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어휘를 사용하는 의식의 저변에는 의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자리잡고 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의미의 개념이나 본질을 모르면서도 어휘를 혼란스럽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의미의 저변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은 요소를 찾아가는 작업은 그러므로 인류의 보편적 인식을 찾아가는 작업의 하나이며, 언어의 본질을 찾아가는 작업의 일부가 된다. 이것이 이 글을 작성하는 머나먼 목적이다.

하나의 어휘에는 다양한 의미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다양한 의미는 하나의 원의미에서 파생된 것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것이 원의미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영어사전을 보면 ‘rocky’에는 ‘firm, hard, unfeeling’라는 ‘안정’ 계열을 나타내는 의미가 제시되어 있고, ‘rocky’에는 ‘unsteady, wobbly, uncertain’과 같은 ‘불안정’ 계열의 의미가 제시되어 있다. 하나의 어휘가 이와 같이 상호 반대되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바위’를 ‘굳건한 사물’로 보는 관점과 ‘흔들리는 사물’로 보는 관점이 병존하기 때문일 것이다. 초기 영어 사용자들이 ‘바위’를 어떠한 사물로 보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rocky’의 원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rocky¹’과 ‘rocky²’를 同音同綴異義語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글은 ‘rocky¹’과 ‘rocky²’의 의미가 모두 ‘바위에 대한 관찰’이라는 하나의 관점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주목은, 하나의 어휘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들이 사실은 하나의 줄기에서 출발하였으리라는 가정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임홍빈(1993:7)이 제시하는 우리말 ‘가다’의 용법을 보자.¹⁾

가다¹

1. 말하는 사람 또는 어떤 출발점을 기준으로 어떤 대상이 그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여 자리를 옮기는 상태가 되다.
 남편이 지방에 갔다.
 저승으로 간 사람을 그리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동생이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로 간다.
2. 어떤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대상이 다른 사람에게 이르는 상태가 되다.
 어머님께 소식이 갔다.
 그 사람한테는 웬 지 호감이 간다.
3. 어떤 대상 또는 물건의 가치나 값이 어느 정도에 이르는 상태가 되다.
 양복 한 벌에 5만원이 간다.
 서울에서 제일 가는 부자.
4. 어떤 일이나 작용 또는 기능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과정에 있는

1) 임홍빈(1993:7)의 각 예문에는 ‘가다’가 ‘~’ 표시로 되어 있다. 필자는 이 용례를 인용하면서 임의로 이를 ‘간다, 갔다’로 바꾸었다.

상태가 되다.

세월이 너무나 빨리 간다.

우리들의 우정은 오래 간다.

5. 있던 것이 없어지거나 그 작용이나 기능이 없어진 상태가 되다.

이 음식은 벌써 맛이 갔다.

그 노래는 벌써 한물 갔다.

6. 이제까지 없었던 금, 주름, 얼룩 등이 생기는 상태가 되다.

벽에 금이 갔다.

옷에 얼룩이 갔다.

7. [보조 용언] '-아/어/여'로 끝난 동사나 형용사 뒤에 쓰여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변화가 점차 진행됨을 나타낸다.

벌레가 나뭇잎을 먹어 간다.

날이 어두워 간다.

8.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 관련 장소를 향하여 떠나는 상태가 되다.

형이 학교를(변소를 · 우체국을 · 시장을) 간다.

가다*

1. 사람이나 물체가 어떤 장소를 지나, 말하는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어떤 곳으로 움직여 자리를 옮기는 상태가 되다.

아이가 산길을 홀로 갔다.

그들은 지금 종로를 간다.

2. 사람이 어떤 일을 목적으로 떠나는 상태가 되다.

김 선생이 등산을 갔다.

노총각이 장가를 간다.

3. 사람이 노름 따위에 돈을 거는 상태가 되다.

이쪽에 3만원을 간다.

서울에서 제일 가는 부자.

4. 석차나 물건이 값 따위가 어느 정도 이르는 상태가 되다.
동생은 자기 반에서 일등을 간다.
그 물건의 가격은 2만원을 간다.

임흥빈(1993:8)은 ‘가다’와 ‘가다’가 同音異義語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만약 한영사전을 편찬하면서 위의 용례를 영어로 제시한다면 영어사용자들은 한국어 ‘가다’에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 제시된 다양한 언어 환경에서 한국인은 ‘가다’라는 근원적 행위를 적용시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위에 제시된 ‘가다’는 ‘가다’의 의미가 아니라 ‘가다’의 다양한 용례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영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은 영어사전에 제시된 ‘go’의 대략적인 의미항이다.

1. 가다, 나아가다.
go along the road 길을 가다.
2. 향하다
go from Seoul to London 서울에서 런던으로 가다.
3. ...을 하러 가다
go to bed 취침하다
4. ...으로 가다
go by bicycle 자전거로 가다.
5. 떠나다, 출발하다.
The boat has just gone. 배는 방금 떠났다.
6. 뻗다, 도달하다, 미치다
How far does this road go? 이 길은 어디까지 뻗어 있습니까?
7. 돌아가다, 작동하다, 울리다, 울다
The fan won't go. 선풍기가 영 작동하지 않는다.

It goes by electricity. 그것은 전기로 움직인다.

There goes the bell. 벨이 울리고 있다.

The clock has just gone six. 시계가 방금 6시를 쳤다.

Cows go "moo". 소들이 「음매」 운다.

8. 일이 되어가다

How did your speech go? 당신의 연설은 어떠했습니까?

It goes by electricity. 그것은 전기로 움직인다.

My research is going well. 내 연구는 잘 되어가고 있다.

This plan will not go. 이 계획은 잘되지 않을 것이다.

9. 없어지다, 사라지다, 제거되다, 쇠퇴하다, 죽다.

The pie went fast. 파이는 금방 (먹어서) 없어졌다.

Poverty must go. 빈곤은 퇴치되어야 한다.

He may go at any time. 그는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10. <시간 등이> 지나가다, 경과하다.

The vacation went quickly. 휴가는 금방 지나가 버렸다.

11. (몸짓 등을) 하다, 행동하다

When he eats, he goes like this. 그는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한다.

Go easy with him. 그에게 잘 대해주게.

12. 유통되다, 유효하다.

US bank notes go anywhere. 미국의 달러는 어디에서든 통용된다.

At these parties, anything goes. 이러한 파티에서는 무엇이든 허용된다.

The rule still goes. 그 규칙은 아직도 유효하다.

13. 돈 등이 소비되다, 재산 등이 (...에게) 주어지다

All his spare money goes on books. 여분의 돈은 모두 책 사는 데 쓰여진다.

- The property went to her. 그 재산은 그녀에게로 돌아갔다.
14. 물건이 어떤 금액으로 팔리다, 팔려가다
A double with private bath goes for 5 pounds. 욕실 달린 2인용 방은 5파운드입니다.
The building went cheap. 그 건물은 싸게 팔렸다.
15. ...의 수단에 호소하다, 의지하다
go to war 전쟁[완력]에 호소하다.
go to court 법에 호소하다.
16. ...이 되다, 어떤 상태에 이르다
go mad 미치다, 실성하다.
go dead 엔진이 멎다
go into hysterics 히스테리상태가 되다.
17. 어떤 상태인 채 계속되다, 어떤 상태에 있다.
go hungry 굶주리다.
go armed 무장하고 있다.
18. 물건이 어떤 장소에 놓여지다, 놓여지다
Where do the cups go? 찻잔은 어디다 두나요?
This chair goes in the corner. 이 의자는 구석에 들어간다.
19. 속담, 이야기 등이 ...이라고 하다, 씌어 있다
It goes as follows. 글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story goes that .. 그 이야기인즉 이러하다.
20. ...하는 데에 도움이 되다, 이바지하다.
qualities that go to make a hero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자질.
21. 조화되다, 어울리다
Your tie doesn't go with the color of your coat. 네 넥타이는 상의의 빛깔과 어울리지 않는다.
22. 일반적인 기준과 비교해서,로서는

As politicians go, he's a good speaker. 정치가로서 그는 연설을 잘 하는 편이다.

23.하러 하고 있다.

He is going to paint. 그림을 그리러 하고 있다.

It's going to rain. 비가 올 것 같다.

24. ...하는 따위의 짓을 하다.

don't go telling me lies. 거짓말 따위는 하지 마라.

25. 용변을 보다.

I have to go. 화장실에 가야겠다.

26. 빨리 ...하다

Go tell him yourself. 네가 직접 가서 그에게 말해라.

Go take a cold shower. 가서 찬물에 샤워라도 해라.

27. 견디어내다.

I can't go this heat. 이 더위에는 견딜 수 없다.

28. 금액을 ...에 걸다.

I will go you three dollars on the game. 그 게임에 3달러 걸겠다.

29. 토지가 작물을 생산하다.

The plantation goes many tons of sugarcane. 그 농장에서는 몇 톤이나 되는 사탕수수가 나온다.

30.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맛볼 수 있다.

Could you go a piece of cake? 케이크 한쪽 드시겠습니까?

위를 보면 'go'에는 '가다'와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을 보자.

All his spare money goes on books.

여분의 돈은 모두 책 사는 데 쓰여진다.
=여분의 돈은 모두 책 사는 데로 갔다.

A double with private bath goes for 5 pounds.
욕실 달린 2인용 방은 5파운드입니다.
=욕실 달린 2인용 방은 5파운드 갑니다.

go to court
법에 호소하다.
=법(정)으로 간다.

go dead
엔진이 멎다
=엔진이 갔다

Where do the cups go?
차잔은 어디다 두나요?
=차잔은 어디로 가나요?

The story goes that ..
그 이야기인즉 이리하다.
=그 이야기인즉 이렇게 (흘러) 간다.

I will go you three dollars on the game.
그 게임에 3달러 걸겠다.
=그 게임에 3달러 간다.

이상을 보면 'go'의 '쓰이다,이다, 호소하다, 멎다, 두다, 걸다'는 사

실상 '가다'라는 행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쓰이다,이다, 호소하다, 멋다, 두다, 걸다'가 'go'의 의미라는 사유 형식보다는 이러한 경우를 한국인이나 영어사용자들은 '가다'나 'go'라는 행위로 표현한다고 보는 사유형식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이 이외의 경우는, <한국어에서 '가다'라는 행위로 표현되는 상황이, 영어에서는 'go'라는 행위로 표현되지 않으며, 영어에서 'go'라는 행위로 표현되는 상황이 한국어에서는 '가다'라는 행위로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가다'와 'go'라는 어휘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인식보다는 <'가다'와 'go'라는 행위가 다양한 환경에 적용된다.>라는 인식이 보다 본질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는 이 글이 추구하려는 古代漢語의 '亦'의 의미가 사실은 하나의 줄기에서 출발한다는 중요한 논거가 된다.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범위

古代漢語의 '亦'은 '또한'과 같이 중복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그러나 다음을 보자.

孟子見梁惠王，王曰“叟不遠千里而來，(1)亦將有以利吾國乎？”孟子對曰“王何必曰利，(2)亦有仁義而已矣。”(梁惠王 上)

위 문장은 孟子的 첫 부분이다. 따라서 (1,2)의 '亦'은 어떤 내용도 중복하여 나타낼 수 없다.

子曰“學而時習之，(3)不亦說乎？有朋自遠方來，(4)不亦樂乎？人不知而不慍，(5)不亦君子乎？”(論語，學而-1)

위는 論語의 첫 부분이다. 따라서 (3-5)의 ‘亦’도 어떤 내용도 중복하여 나타낼 수 없다. 이러한 ‘亦’의 존재에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한 두 가지 설명방법이 있어 왔다.

그 하나는 論語와 孟子的 편집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위의 문장 앞에 다른 문장이 존재하여 (1-5)의 ‘亦’이 중복을 나타낼 수 있었으나 論語와 孟子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앞 부분이 사라졌거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설명하지 못한다. 즉, 위 문장은 그 자체로 완전하므로 앞 문장과의 연계가 필요하지 않으며, 위 문장 이외의 다른 문장에도 중복을 나타내지 않는 ‘亦’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亦’이 어기를 강조를 나타내는 허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복을 나타내는 부사가 어떠한 조건 아래에서 어떤 어기를 강조하는지가 문제된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이 글은 앞으로 ‘亦’이 중복을 나타내는 경우에 무엇을 중복시키는지, 그리고 강조의 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 어떤 내용을 강조하는지를 찾아갈 것이며, 중복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타내는 강조 어기에 범인류적 보편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글은 孟子에 나오는 ‘亦’을 다루기로 한다. 이는 필자의 능력이 孟子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孟子의 ‘亦’의 기능이 밝혀지고, 이에 또 다른 서적의 ‘亦’의 기능이 덧붙여지면 진정한 ‘亦’의 기능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孟子가 古代漢語의 전형적 산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孟子의 ‘亦’의 기능은 古代漢語 전반의 ‘亦’의 기능을 대표할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다.

2. ‘亦’의 기능에 대한 기왕의 견해

‘亦’의 기능에 대하여 가장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裴學海

(1923:171-184)이다. 그는 여기에서 '亦'이 '也, 也是, 又, 則, 卽, 乃, 其, 惟, 猶, 總, 皆, 尙, 此, 果, 故, 姑, 如, 若, 或, 以, 已, 與, 滋, 語助'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²⁾ 이러한 주장이 옳다면 '亦'은 기능이 다양한 허사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楊伯峻(1981:271-273)은, '亦'이 '又'의 기능, '僅僅, 只是, 不過'의 기능, 그리고 어기를 나타내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보았고, 李科第(2001:580-581)에는, 부사로서는 '也, 又, 還', '僅僅, 只是, 不過', '轉折' 표시 기능이 있으며, 助詞로서는 '강조, 평안'의 어기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국내에서 발간된 김원중(2003:572-576)에서는 '亦'의 기능을 '또한, 역시', '단지, 다만', '청구·의논·권고·명령의 어기' 표현 기능, '의미 없는 어조사'의 네 가지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상의 견해에 공통된 부분은 '亦'은 '又·也, 僅'을 나타내며, 이 이외에 어기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裴學海(1923:176)는 무슨 이유로 '亦'의 기능을 위와 같이 복잡하게 제시하였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 문장을 보자.

- (1) 叟不遠千里而來亦將有以利吾國乎。(梁惠王 上)
 - a. 노인장께서 천리를 멀다고 여기지 않고 오셨으니, 그에(오신 행위의 결과에)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 b. 노인장께서 천리를 멀다고 여기지 않고 오셨으니, 또한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 (2) 王何必曰利亦有仁義而已矣。(梁惠王 上)
 - a. 왕은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 b. 왕은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또한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 (3) 子聞寡人之聲聞亦何如焉?(韓非子 內儲說 上)
 - a. 그대가 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니 (소문이) 과연 어떠한가?
 - b. 그대가 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니 (소문이) 또한 어떠한가?

2) 여기에는 經傳釋詞에서 제시한 '亦'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4) 不亦說乎。(論語, 學而)

- a. 기쁘지 아니한가?
- b.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裴學海(1923:171-184)는 (1-3)의 ‘亦’은 (1-3)의 (a)로 해석하고, 이 경우의 ‘亦’이 각각 ‘其’, ‘惟’, ‘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亦’의 원의미인 ‘또한’으로 해석한 (1-3)의 (b)가 모두 자연스럽다. 裴學海는 (4)의 ‘亦’을 문장 가운데에 사용되는 ‘語助’로 보았다.³⁾ ‘語助’의 기능이란, 의미의 구성에 관여하지 않고 어조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4a)와 같은 해석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亦’의 기능을 살린 (4b)가 더욱 정교한 해석이라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⁴⁾

李科第(2001:580)는 다음에서 ‘亦’이 ‘단지, 다만’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5) 堯舜之治天下, 豈無所用心哉, 亦不用於耕耳。(滕文公 上)⁵⁾

- a. 堯舜이 천하를 다스릴 때 어찌 마음을 쓰는 곳이 없었으리오, 다만 밭가는 데에 쓰지 않았을 뿐이다.
- b. 堯舜이 천하를 다스릴 때 어찌 마음을 쓰는 곳이 없었으리오, 또한 밭가는 데에 쓰지 않았을 뿐이다.

李科第는 (5)를 (5a)의 의미로 파악하고, ‘亦’이 ‘단지, 다만’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를 (5b)와 같이 이해해도 아무런 문제

3) (4)를 이렇게 본 것은 經傳釋詞를 인용한 것이다. 經傳釋詞에는 ‘不亦’과 ‘盍亦’의 ‘亦’이 모두 語助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凡言不亦者, 皆以亦爲語助, 不亦說乎, 不說乎也, 不亦樂乎, 不樂乎也, 不亦君子乎, 不君子乎也, 趙岐注孟子滕文公篇曰, 不亦者, 亦也, 失之.

凡言盍亦者, 亦以亦爲語助, 盍亦求之, 盍求之也{左傳僖二十四年} 子盍亦遠績禹功而大庇民乎, 盍遠績禹功而大庇民也{昭元年} 王其盍亦鑑於人, 盍鑑於人也{吳語}

盍亦反其本矣, 盍反其本也{孟子梁惠王篇}

4) (4b)가 더욱 정교한 해석이라는 것은 이 글의 본론에서 다루어진다.

5) 楊伯峻·何樂士(1992:317)도 이 문장의 ‘亦’이 ‘只, 僅’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가 없다.

楊伯峻(1981:272)은 다음의 '亦'이 '여기'의 기능하다고 보았다.

(1') 叟不遠千里而來亦將有以利吾國乎?(梁惠王 上)

노인장께서 천리를 멀다고 여기지 않고 오셨으니, 또한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楊伯峻은 (1')의 '亦'을 현대 중국어의 '也'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也'가 어기를 부드럽게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裴學海(1923:176)는 이 '亦'을 '其'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亦'에 대한 견해가 학자마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亦'의 기능에 대한 견해가 학자마다 다르고, 심지어 동일한 문장에 사용된 '亦'의 해석이 학자마다 다르다고 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亦'의 근원적인 성격을 찾아보는 작업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亦'의 갑골문을 보기로 하자.



위는 '亦'의 갑골문자이다. 馬如森(1993:547)은 이에 대한 해설에서 '亦'은 大와 八로 구성되어 있으며, 八은 겨드랑이가 있는 부위를 표시한다. 腋은 亦의 古字이며, 본의는 사람의 겨드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說文解字에서도 '亦'은 '양쪽의 겨드랑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겨드랑이'와 또 다른 의미인 '또한, 모두, 크게, 대단히'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일까? '亦'의 갑골문은 팔을 양옆으로 길게 뻗고, 그 사이에 있는 두 군데의 겨드랑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양팔을 길게 뻗어 어떤 물체를 잔뜩 껴안은 형태이다. 이로부터 '또한, 모두'가 나왔을 것이고, '또한, 모두'로부터 '크게, 대단히'라는 의미가 나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亦’의 원의미는 ‘또한’이라고 보아서 문제될 것이 없다. ‘또한’은 중복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裴學海(1923)가 제시하는 ‘亦’에 대한 다양한 의미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일까? 裴學海(1923)는 ‘亦’이 들어간 문장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이 해석 중에서 ‘亦’에 해당하는 부분을 곧 ‘亦’의 의미로 제시했다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형식의 訓詁 방식은 중국의 여러 학자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으로서는 의미의 본질에 다가서기 어렵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

3. ‘亦’의 중복 표시 기능

‘亦’은 동일한 술어의 중복을 나타낸다.

舜人也，我亦人也。(離婁 下)

舜이 사람이라면, 나도 또한 사람이다.

魚我所欲也，熊掌亦我所欲也。(告子 上)

생선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熊掌도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다.

‘亦’은 연용되어 동일한 술어의 중복을 강조하기도 한다.

生亦我所欲也，義亦我所欲也。(告子上)

사는 것도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며, 의리도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다.

治亦進，亂亦進，伊尹也。(公孫丑 上)

다스려져도 또한 벼슬을 하고, 혼란스러워도 또한 벼슬하는 사람은 伊尹이다.

‘亦’은, 자신의 다음에 나오는 술어가 앞에 나온 술어와 동일하지 않지만, 내용이 동일하면 중복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河內凶則移其民於河東，移其粟於河內，河東凶亦然。(梁惠王 上)
王立於沼上，顧鴻鴈麋鹿，曰賢者亦樂此乎。(梁惠王 上)

위의 ‘亦’ 다음의 술어는 ‘然，樂此’이다. ‘然’은 그 자체의 의미로 앞의 내용을 나타내며, ‘樂此’는 앞의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孟子的 ‘亦’이 중복을 나타내는 경우는 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4. ‘亦’의 주관 감정·주관 판단 표시 기능

‘亦’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말에 사용되는 ‘또한’의 기능을 알아보자.

- (1) 가을이 오니 내 마음이 또한 슬퍼진다.
- (2) 그 사람을 보니 내가 또한 즐겁다.

위의 ‘또한’은 중복을 나타내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이 경우의 ‘또한’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1,2)를 분석하여 보기로 하자. (1)은 가을이 온다는 객관 사실이 주어지고, 이에 따라 내 마음이 슬퍼진다는 화자의 주관 감정이 서술되어 있다. (2)도 이와 같이 그 사람을 본다는 객관 사실과 내가 또한 즐겁다는 주관 감정이 서술되어 있다. 이 경우의 ‘또한’은 주관 감정을 강조한다.

- (3) 이런 기회가 찾아오자 그의 생활은 또한 생기를 찾았다.
- (4) 이혼을 한 후 그는 또한 실의에 빠졌다.

위의 ‘또한’도 (1,2)의 경우와 같다. 다만 주관 감정의 주체는 ‘나’가 아니라 ‘그’이다. 이 경우의 ‘또한’은 화자가 파악한 ‘그’의 주관 감정을 강조한다.

(5) 겨울이 오면 봄이 또한 멀지 않으리.

위의 ‘또한’도 (1,2)의 구성과 다르지 않다. 다만 ‘봄이 멀지 않으리’라고 느끼는 주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주체는 ‘나’이거나 혹은 화자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일 것이다. 이 경우에 ‘또한’은 화자의 주관 감정을 강조한다.

우리말 ‘역시’의 기능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결점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역시 그녀를 사랑한다.

(7) 단풍이 드니 역시 가을이 좋다.

위의 (6)은 ‘결점이 있다’는 객관 사실이 전제되고, ‘그래도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는 주관 감정이 제시된 문장이며, (7)은 ‘단풍이 들었다’는 객관 사실이 전제되고, ‘가을이 좋다’는 주관 감정이 제시된 문장이다. (6,7)의 ‘역시’는 여기에서 주관 감정을 강조한다.

(8)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없으면 역시 곤란하다.

(9) 사태가 그 이상 진전되지 않았으니, 그들은 역시 운이 좋았던 것이다.

위의 (8)은 ‘돈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객관 사실이 전제되고, ‘그래도 돈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주관 감정이 제시된 문장이다. 이 경우의 ‘그래도 돈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주관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9)는 ‘사태가 그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는 객관 사실이 전제되고, ‘그들은 운이 좋았다’는 주관 감정이 제시된 문장이다. 이 경우의

‘그들은 운이 좋았다’는 주관 판단이다. 이상의 한국어 (1-8)은 일본어에서도 동일하게 성립한다. 이는 일본어에서 중복을 표시하는 부사 ‘も, だって, やはり’가 한국어의 중복 표시 부사와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1') 秋になると 私の心も 悲しくなる。
- (2') 彼に會うと 私も (だって) 楽しい。
- (3') このような機會に恵まれると、彼の生活も 活力を戻した。
- (4') 離婚後、彼は やはり 落ち 込んでしまった。
- (5') 冬になると、春も 遠くないことであろう。
- (6') 欠点はあるが、それでも やはり わたしは 彼女を愛している。
- (7') 事態がそれ以上進まなかったので、彼らは やはり 運がよかったですと思う。
- (8') 紅葉になると やはり 秋は いい。
- (9') お金が 全てではない。 それでも お金がないと やはり 困る。

이상의 논의는, 객관 사실을 전제로 주관 감정 혹은 주관 판단이 제시되는 문장에 사용되는 중복표시 부사는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동일하게 주관 감정 혹은 주관 판단을 강조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孟子에 사용된 ‘亦’에도 우리말 ‘또한’의 기능과 같은 주관 감정의 강조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亦’은 문장 내부에서 어떠한 사실의 중복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제 중복을 나타내지 않는 ‘亦’이 사용된 문장을 분석하여 보기로 하자.

- (1) 方四十里爲阱於國中，民以爲大，不亦宜乎。(梁惠王 下)
- (2) 然友之鄒問於孟子孟子曰不亦善乎。(滕文公 上)

- (3) 不敢以祭則不敢以宴亦不足弔乎?(滕文公 下)
- (4) 周公方且膺之子是之學亦爲不善變矣。(滕文公 上)
- (5) 禹之行水也行其所無事也如智者亦行其所無事也則智亦大矣。
(離婁 下)
- (6) 我欲行禮子敖以我爲簡不亦異乎?(離婁 下)

위 문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 (1) [方四十里爲阱於國中, 民以爲大]→객관 사실
[不亦宜乎]→주관 감정
- (2) [吾欲使子問於孟子然後行事然友之鄒問於孟子]→객관 사실
[不亦善乎]→주관 감정
- (3) [不敢以祭則不敢以宴]→객관 사실
[亦不足弔乎]→주관 감정
- (4) [周公方且膺之, 子是之學]→객관 사실
[亦爲不善變矣]→주관 감정
- (5) [禹之行水也行其所無事也如智者亦行其所無事]→객관 사실
[智亦大矣]→주관 감정
- (6) [我欲行禮子敖以我爲簡]→객관 사실
[不亦異乎]→주관 감정

(1-6)에 사용된 ‘亦’은 객관 사실과 주관 감정을 서술하는 문장 사이에 위치한다. 이러한 구성은 한국어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 ‘亦’이 ‘또한’으로 해석되면 의미는 자연스럽게 이해되며 이러한 ‘亦’은 중복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亦’은 객관 사실과 주관 감정을 서술하는 문장 사이에 위치하여 주관 감정의 강조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을 보자.

- (7) 吾見，亦罕矣。(告子 上)
 내가 만나는 일이, 또한 적었다.
- (8) 子倍子之師而學之，亦異於曾子矣。(滕文公 上)
 그대가 그대의 스승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웠으니,
 또한 증자와는 다르다.
- (9) 奚有於是，亦爲之而已矣。(告子 下)
 이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리오, 또한 실천할 뿐이다.
- (10) 孝子仁人之掩其親，亦必有道矣。(滕文公 上)
 효자仁인이 부모의 시신을 덮는 데에는, 또한 필히 방법이
 있다.
- (11) 周之，亦可受也。(告子 下)
 구제하기 위하여 주는 것이라면, 또한 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12) 舜何人也，予何人也，有爲者亦若是。(滕文公 上)
 순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실천하는 사람이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다.

(7)의 '吾見'은 주어로 제시된 상황이고, '亦罕矣'는 이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다. (8)의 '子倍子之師而學之'는 주어진 상황이고, '亦異於曾子矣'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다. (9)의 '奚有於是'는 반어적으로 제시된 상황이고, '亦爲之而已矣'는 이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다. (10)의 '孝子仁人之掩其親'은 분야적 상황이고, '亦必有道矣'는 이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다. (11)의 '周之'는 조건적 상황이고, '亦可受也'는 이 조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다. (12)의 '舜何人也，予何人也'는 전제적 상황이고, '有爲者亦若是'는 전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다. (7-12)에서 '亦'은 중복을 나타내지 않으며, 주어진 상황에 대한 주관 판단을 강조한다.

이제 선행 연구가 제시한 '亦'의 기능을 보면서 이러한 파악이 갖는

문제점을 찾아보기로 하자.

(13) 王曰叟不遠千里而來亦將有以利吾國乎?(梁惠王 上)

(14) 孟子對曰王何必曰利亦有仁義而已矣。(梁惠王 上)

裴學海(1923:176)는 (13)의 ‘亦’이 ‘其’의 기능을 갖는다고 보는 반면, 楊伯峻(1981:272)은 이 ‘亦’이 부드러운 어기를 나타내며, 이러한 ‘亦’은 없어도 된다고 말한다. 楊伯峻은 이 ‘亦’을 현대중국어의 ‘也’로 해석한다. 이 ‘亦’이 없어도 된다는 楊伯峻의 견해에 본고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를 현대중국어의 ‘也’로 해석한 것은 본고의 논지와 유사하므로, 여기에서는 裴學海의 견해를 검토하기로 한다.⁶⁾ 裴學海의 견해대로라면 (13)은 ‘孟子가 천리를 멀다고 여기지 않고 찾아온 그 행위에는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할 이 있겠습니까?’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亦’에 ‘其’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은 필연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만약 이 경우의 ‘亦’이 ‘其’의 의미를 갖는다면 이 문장의 ‘亦’은 처음부터 ‘其’로 기술되었을 것이다. 孟子에는 ‘거기에 무엇이 있다, 그가 무엇을 소유하다’ 등을 나타내는 ‘其有’ 형식이 ‘其有麋鹿魚鼈, 尺地莫非其有, 其有四體, 其有功於子, 其有酒食黍稻者, 其有不合者’ 등과 같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해의 소지가 많은 ‘亦’을 ‘其’의 용법으로 사용할 필요가 이유가 없게 된다.

裴學海(1923:177)은 (14)의 ‘亦’이 ‘惟’의 기능을 나타낸다고 본다. 이는 (14)의 의미를 ‘오직 인의가 있을 뿐이다’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 해석은 ‘오직’과 ‘뿐’이 연결되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번역된 한국어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14)에서 ‘뿐’이 나오는 것은 ‘而已’의 존재 때문이다. ‘而已’가 이미 축소의 ‘뿐’을 나타내므로 다시 축소를 나타내는 ‘惟’는 필요 없는 요소이다. 실제로 孟子에는 ‘惟’가 42개 문장에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이 ‘而已’를 동반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이는 유일성을

6) 현대 중국어의 ‘也’는 ‘亦’에서 연유하였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이에 대하여는 준비중인 논문 ‘현대중국어의 也에 대하여’를 참고할 것.

나타내는 '而已'가 다시 유일성을 나타내는 '惟'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14)의 '亦'은 '惟'를 의미할 수 없다. (14)의 '亦'에 대하여 正祖(1998:113)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⁷⁾

“여기에 亦有仁義라 하였는데, 亦有의 亦字는 말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겠는가? 저 仁義라는 두 글자는 바로 맹자가 평소 자임하는 宗旨로서, 天理를 보존하고 人欲을 막는 일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王道를 높이고 霸術을 물리치는 일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니, 이것을 버리면 모두가 잘못되고 편벽된 길이다. 장차 인의를 말하고자 하였다면 그 다음에 단연코 바꿀 수 없는 결정적인 말을 써야 마땅할 터인데 지금은 하나의 亦字를 가지고 가벼이 끌어다가 말을 시작하여, 마치 仁義 말고도 다시 다른 도가 있는 것처럼 하였다. 더없이 엄격한 孟子의 文法에 비추어 보건대 이와 같이 완곡하게 해서는 안 될 듯하다. 이것이 어찌 의문을 가질 만한 것이 아니겠는가(此云亦有仁義亦有之亦字無乃說得太輕耶夫仁義二字乃孟子平日自任之宗旨存天理人欲不外于是存王道黜霸術不外于是捨此則蓋曲徑僻路也將欲說出仁義宜下斷然不可易之辭而今乃以一亦字輕輕引起有若仁義之外更有他道者然律以孟子斬釘 截鐵之文法恐不宜如是婉曲此豈非可疑字耶)”

이에 대하여 金祖淳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亦有의 亦字는 바로 이 利字에 대응시켜 말한 것이니, 대개 惠王이 단지 利가 있음을 알고 다시 仁義가 있음을 알지 못 하였기 때문에 ‘亦有仁義而已’ 라고 말한 것입니다. ‘而已’ 라는 두 글자

7) 국역 홍재전서 9권 113페이지. 이 부분은 弘齋全書의 經史講義의 일부이다. 經史講義는, 正祖가 경서 중에서 의문시되는 점을 신하에게 물었는데, 이 물음과 이에 대한 신하들의 대답 중 좋은 것을 모아 만든 책이 經史講義이다.

를 살펴보면 仁義 이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祖淳對亦有之亦字是對利字而言者蓋惠王只知有利不知更有仁義故曰亦有仁義而已觀於而已二字則可知仁義之外更無他岐矣)”

이를 보면 正祖와 金祖淳이 모두 ‘亦’이 중복을 표시한다는 점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을 보자.

- (15) 堯舜之治天下豈無所用心哉，亦不用於耕耳。(滕文公 上)
요순이 천하를 다스리면서 어찌 마음을 쓰지 않은 곳이 있으리오, 또한 농사에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 (16) 以一服八何以異於鄒敵楚哉，蓋亦反其本矣。(梁惠王 上)
하나의 나라로 여덟 나라를 굴복시키는 것이, 鄒가 楚를 대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오, 또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楊伯峻(1981:271)과 李科第(1923:580)는 (15)의 ‘亦’이 ‘只是’의 기능을 갖는다고 본다. 이렇게 보면 위 문장은 ‘단지 밭가는 데에 쓰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亦’에 ‘다만’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은 필연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15)에서 ‘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耳’이다. 孟子에서 ‘耳’가 쓰인 문장이 다시 ‘다만, 오직’을 나타내는 부사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直不百步耳, 直好世俗之樂耳’와 같이 ‘直’을 사용한다.⁸⁾ 이 이외에 ‘耳’가 ‘다만, 단지’를 나타내는 허사를 동반하는 경우는 孟子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15)의 ‘亦’은 ‘只是’일 수가 없다. (16)의 ‘亦’을 李科第(1923:581)는 강조를 나타내는 어기조사로 본다. 그러나

8) ‘而已’와 ‘耳’는 모두 유일성을 나타내는 문말어기조사이다. ‘而已’는 유일성을 나타내는 ‘惟, 直’ 등의 허사를 동반할 수 없다. 그러나 ‘耳’가 ‘直’과 같은 허사를 동반할 수 있는 이유는 ‘耳’가 ‘선택의 유일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준비중인 논문 ‘古代漢語의 유일성에 대하여’를 참조할 것.

그는 '亦'가 어떠한 원리로 무엇을 강조하는 지를 말하지 않고 있다. 다음을 보자.

(17) 自反而忠矣其橫逆由是也, 君子曰此亦妄人也已矣。(離婁 下)

楊伯峻(1981:271)은 (17)의 '亦'이 '不過, 只是'의 기능을 갖는다고 본다. 이렇게 보면 위 문장은 '이 사람은 미친 사람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亦'에 '不過, 只是'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은 필연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17)에서 '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已'이다.孟子에서 '已'가 단독으로 유일성의 '뿐'을 나타내는 경우에 '不過, 只是'와 같은 유일성을 나타내는 부사를 동반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17)의 '亦'은 '不過, 只是'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이 글은 (13-17)의 '亦'이 지금까지 주장되어온 기능을 가질 수 없다는 논의를 해왔다. 그렇다면 (13-17)의 '亦'을 이 글이 주장해온 '주어진 상황에 대한 주관 판단의 강조' 기능을 갖는다고 보기로 하자. 이렇게 보면 (13-17)의 문장의 의미는 보다 명확해진다. 번역문은 이렇게 해석된 문장이다.

楊伯峻(1981:272)은 다음의 '亦'이 책망의 어기를 나타낸다고 말한다.

(18) 孟子曰子亦來見我乎?(離婁 上)

그대가 또한 나를 만나러 왔단 말인가?

(18)에는 분명히 책망의 어기가 있다. 그렇다면 '亦'이 어떠한 원리로 이러한 기능을 갖게된 것인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본고의 논의대로라면 중복을 나타내지 않는 '亦'은 주관 감정의 강조, 혹은 주관 판단의 강조를 나타낸다. 그러나 문장의 의미상 '子亦來見我乎'가 주관 판단의 강조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는 주관 감정의 강조일 수밖에 없다. 외형적으로는 동사술어문인 '子亦來見我乎'가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

다. 그러나 이 문장의 내용은, 齊나라에 온 제자가 자신을 뒤늦게 자신을 찾아온 것을 孟子가 비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亦’은 ‘제자가 뒤늦게 찾아왔다’는 객관 서술에 이어서, ‘네가 이제야 나를 만나러 왔다는 말인가’와 같은, 숨어있는 주관 감정의 강조를 나타낸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동사술어문에 사용된 ‘亦’도 화자의 주관 감정의 강조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5. 결론

이 글은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여 왔다.

1. ‘가다’와 ‘go’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지만 한국인이나 영어사용자는 잠재의식에서 각각의 환경을 ‘가다’와 ‘go’의 의미라고 인식하지 않는다.⁹⁾ 그들은 각각의 환경에서 ‘가다’와 ‘go’라는 행위를 연상하고 적용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각 어휘의 다양한 의미는, 원의미에서 시작되는 연상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방식을 통하여 우리는 의미 분화나 의미 파생의 원리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금까지 제시된 ‘亦’의 의미는 너무나 다양하며, 그들 사이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없다. 또한 하나의 ‘亦’에 대한 견해도 각각 다른 경우가 있다. 이는 ‘亦’의 본원적 기능에 기반을 두고 의미가 추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亦’의 갑골문자는 ‘亦’에 ‘또한’과 같은 중복 표시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9) 다만, 한국인의 영한사전에서는 ‘go’가 사용되는 각각의 경우를 의미항으로 제시한다. 외국어 사전은 모두 이렇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들을 ‘go의 의미’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는 준비중인 저서 ‘한자의 미론’을 참고할 것.

4. '또한, 역시'와 같은 중복 표시 부사가 중복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 서술]과 [주관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에 사용되어 [주관 감정]의 강조를 나타내며, [상황 제시]와 [주관 판단]을 나타내는 문장에 사용되어 [주관 판단]의 강조를 나타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孟子에 사용되는 '亦'이 중복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 서술]과 [주관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에 사용되어 [주관 감정]의 강조를 나타내며, [상황 제시]와 [주관 판단]을 나타내는 문장에 사용되어 [주관 판단]의 강조를 나타낸다.
5. 이러한 현상은 古代漢語, 한국어, 일본어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古代漢語, 한국어, 일본어가 부분적으로 공통된 언어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¹⁰⁾

이 글은 이상과 같이 古代漢語의 중복 표시 부사 '亦'의 기능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古代漢語의 중복 표시 부사에는 '亦' 이외에도 '又, 且, 復, 更, 還, 重' 등이 존재한다. 이 글의 논의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亦'의 기능과 이들의 기능이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연구는 향후 다시 진행하기로 한다.

10) 古代漢語 뿐만 아니라 현대중국어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아직 논문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는 허성도의 준비중인 논문 "현대 중국어의 '也'에 대하여"를 참고할 것.

참고 자료

- 裴學海(1923), 古書虛字集釋, 廣文書局, 臺北
楊伯峻(1981),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北京
楊伯峻·何樂士(1992),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北京
馬如森(1993), 殷墟甲骨文引論, 東北師範大學出版社, 長春
임홍빈(1993), 뉴앙스풀이를 겸한 우리말 사전, 아카데미하우스, 서울
이 산(1998), 국역 홍재전서, 민족문화추진회, 서울
李科第(2001), 漢語虛詞辭典, 雲南人民出版社, 昆明
김원중(2003), 虛辭大辭典, 현암사, 서울
허성도(2010), 준비중인 논문 “古代漢語의 유일성에 대하여”
_____ (2010), 준비중인 논문 “현대 중국어의 ‘世’에 대하여”
_____ (2011), 준비중인 저서 <한자의미론>